

6.25 참전 영노병 위한 젊은작가展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6-16 04:44



한국전 회화.사진 등 40점 특별 제작.기증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의 젊은 현대 작가들이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국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뜻깊은 선물을 내놓았다.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원용기)에서 16일 개막된 '과거로부터 온 선물(Present from the Past: 60th Commemoration of the Korean War)' 전시회에는 6.25전쟁을 되돌아보는 사진, 회화 등 40여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 '파괴와 창조', '잊혀진 전쟁,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나의 한국, 불안한 평화' 등 4가지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창 때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이제는 80대 노인이 돼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모두 40명의 작가들이 영국 관객들과 예술적으로 소통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하고 6.25와 관련된 작품을 특별히 제작해 기증했다.

강용석, 이세현, 이용백, 세오, 신미경 등 기성 한국 작가들과 영국, 베를린 등에서 활동

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이 포함돼 있다.

비무장지대가 지상낙원으로 비쳐지는 이상엽의 사진, 적외선 망원경으로 본 비무장지대를 유토피아로 해석한 이세현의 회화, 참전용사 부인과 딸의 평범한 일요일 점심 식사 장면을 담은 이수진의 디지털 드로잉....

전시가 끝난뒤 작품들은 로열 브리티시 레전에 기증돼 오는 9월 소더비 자선경매를 거쳐 수익금은 전액 영국참전용사기금으로 전달된다.

전시 작품들은 또한 한장씩 엮서로 디자인돼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생존해 있는 영국 참전용사 4천여명에게 한 묶음씩 발송된다.

전시회를 기획한 김승민 큐레이터는 "기존의 암울하고 무거운 한국전쟁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쟁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거나 한국전쟁을 잘 모르는 현지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영국군은 6.25 당시 모두 7만5천여명이 참전해 1천78명이 숨졌고 3천여명이 부상했다.

ofcours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3332962>
